

재단법인 양천장학회

[양천장학회 소개]

- 양천장학회는 불우한 환경에 있는 성실한 학생들의 학업을 도와 인재를 육성할 목적으로, 설립자인 김윤택 회장이 1985년 11월 22일 회갑을 기념하여 설립된 장학재단이다.
- 설립당시에는 사회에서 얻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대여자장학제도를 채택하여, 취업 후 자기가 받은 장학금을 양천장학회에 환납함으로써 기금이 축적되어 보다 많은 불우한 학생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였다. 2000년 3월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로,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한편, 기부금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더 많은 장학금 수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, 설립자의 유지를 이어가고 있다.
- 기타 장학사업으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장학재단인 관악회(冠岳會)에 장학기금을 출연하여 「김윤택 특지(特志)장학회」를 설립하여 서울대 장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. 그 외에도 (재)평남장학회, (재)평통장학회에 관여하여 이북도민들의 2~3세, 조선족 유학생 및 탈북자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사업에도 참여한바 있다. 또한, 초록우산(전 한국복지재단)과 결연(結緣)하여 무의탁 학생들을 추천받아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희대학교의 양진후원회(국가고시 준비생 후원)에도 참여하고 있다.
- 양천장학회는 회훈(會訓)인 ‘성실(誠實)·정직(正直)·인화(人和)’를 생활화하여 인성(人性)을 함양할 것을 강조하고 장학생 관리에 힘써 양천가족이라는 공동체 인식을 높이면서 장학생 상호간 또는 장학생과 장학회간의 유대강화에 힘쓰고 있다.
- 장학생 관리를 위해 ①박사학위 취득자 표창, ②회보발행 시 장학생 참여케 하여 상호 간 유대강화(현재 11호까지 발행), ③장학회 출신자들의 친목모임인 양천학우회(學友會) 조직, ④장학회 회가 및 회기를 제정하여 행사시 활용하고 있다.

재단법인 양천장학회 이사장